

4월 일본지역 관광시장동향

일본 내 숙박세 도입현황 및 관련 전망

'24. 04. 26(금) / 오사카지사

□ 숙박세의 의미 및 일본 내 도입현황

- (숙박세)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으로 숙박한 경우 과세하는 지방세
- 숙박세는 법정외목적세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에 미영향
- '24.4 시점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내 지자체는 총 9개*

* 단, 홋카이도 니세코초의 경우 '24.11부터, 오키나와현 차탄쵸·모토부쵸는 '26년부터 도입 결정

지자체	도입시점	1인 1박 숙박요금 당 세액(율)	
도쿄도	2002.10.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엔
오사카부	2017.01.	7,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300엔
교토부 교토시	2018.11.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00엔 미만	500엔
		50,000엔 이상	1,000엔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2019.04.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엔
홋카이도 아부타군 곳찬쵸	2019.11.	숙박요금의 2%	
후쿠오카현	2020.04.	200엔 (단, 현내 후쿠오카시·키타큐슈시는 별도 적용)	
후쿠오카현		20,000엔 미만	200엔**
후쿠오카시		20,000엔 이상	500엔**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200엔**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2023.04.	10,000엔 미만	100엔
		10,000엔 이상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엔

*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의 경우 '24.10월부터 1인 1박당 5,000엔 미만은 숙박세 면제로 개정 예정

** 총 세액중 각 50엔씩은 현세(예. 키타큐슈시 숙박세 200엔 중 50엔은 현세, 150엔은 시세)

□ 숙박세 도입 지자체의 운영 사례

- (도쿄도) '02년(숙박세 도입)부터 '21년까지 총 273억엔의 숙박세 확보
 - '19년의 숙박세는 약 27.1억, 관광산업진흥비 총액(157.9억엔)의 약 17% 기록, '24년은 47.6억엔을 세수로 전망중
 -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 기반조성 사업(와이파이, 안내판, 안내센터 운영)에 중점적으로 투입
 -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277만명('01년)에서 1,518만명('19년)까지 증가
- (교토시) '24년 숙박세 세수는 역대 최고인 약 48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관광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교토의 독자적 가치, 문화, 경관 등의 매력 향상, 사회 인프라 정비, 관광과 공존하는 시민 생활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도 숙박세를 활용
 - 납세의무자인 숙박사업자의 부담 경감 목적으로 매년 신고납입금액의 2.5%(상한 200만엔)를 보조금으로 교부

□ 앞으로의 숙박세 관련 전망 및 의의

- 숙박세 도입 검토 지자체는 약 30여개로 추후 도입 지자체 증가 예상
 - 일본 3대 경제단체 경제동우회 '3% 이상으로 전국 도입해야' 제언
 - 최근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학계, 숙박업자,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제언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형태
- 지자체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관광 개발 재원 확보에 의의
 - 지방 자체 세수(기준재정수입액)가 늘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이나,
 - 숙박세는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안주는 지자체 독자재원(법정의목적세)

출처 : 1. 트래블저널 2024/4/8 'WEEK TOPICS' <숙박세, 정률제를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화>
 2. JTB종합연구소 '지역이 숙박세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https://www.tourismjp/tourism-database/column/2024/03/accommodation-tax/>
 3. 도쿄도 주세국 '숙박세 20년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
 4. 교토시 행재정국세무부세제과 '숙박세 제도의 방향 검토에 대하여'